

# 自菴 金絳의 유배 생활과 ‘憂中有樂’의 면모\*

조 지 형\*\*

## <차 례>

1. 문제의 소개
2. ‘憂中有樂’의 심리와 남해 생활
3. 향락적 흥취와 「화전별곡」 이해의 시각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자암(自菴) 김구(金絳, 1488~1534)의 한시 작품들을 통해 그의 南海 유배 기간 중 내면 의식과 생활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구의 남해 유배기 한시 작품들의 주제적 경향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병리적 고통, ②인간적 情懷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③남해 생활에 대한 적응과 交遊, ④산수 유람과 음악적 풍류, ⑤탈속에 대한 지향과 仙的 풍류가 바로 그것이다.

김구는 13년간의 유배 생활이 지속되면서 차츰 남해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심리적으로도 일상을 회복한 측면이 엿보이고, 무엇보다도 주변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구는 이들과 어울리면서 유배 기간에도 여러 모임을 함께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와 술과 음악이 늘 빠지지 않았다. 한편 김구는 이들의 도움과 비호로 남해 일대의 승경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측면들이 유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방한 풍류의 모습이 가득한 「화전별곡」이라는 작품의 창작을 가능케 한 기반이 아닌가 생각된다.

**핵심어** : 자암, 김구, 유배문학, 경기체가, 화전별곡, 우중유락, 기묘사화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 고려대학교

## 1. 문제의 소재

본고는 1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자암(自菴) 김구(金球, 1488~1534)의 한시 작품들을 통해 그의 南海 유배 기간 중 내면 의식과 생활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의 경기체가 작품인 「花田別曲」에 대한 재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자암 김구는 1513년 26세의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여, 中宗 시기 趙光祖·金淨 등과 더불어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다가, 1519년 발생한 己卯土禍로 인해 남해에 13년간 유배되어 1534년 47세의 일기로 삶을 마쳤다. 그는 젊은 나이에 등제하여 짧은 관직 생활 가운데에서도 承文院司諫院弘文館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줄곧 승직하여 당상관인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詩才가 남달랐고<sup>1)</sup>, 서체가 뛰어나 조선 초기 4대 서예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불렸으며, 음률에도 재주가 있어 掌樂院 樂正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면모 때문인지, 그는 국문시가에도 조예가 깊어 시조 5수와 경기체가 「화전별곡」을 지었다.

이러한 김구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었다.<sup>2)</sup> 국문시가 작품론에서는 시조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오나리 시조’를 논의하면서 그의 시조 3수에 대해 논의되었다.<sup>3)</sup> 또한 그의 「화전별곡」에 대해서는 김기탁<sup>4)</sup>, 최용수<sup>5)</sup>, 최재남<sup>6)</sup>의 논의가 있다. 이상 세 논

1) 그의 문집인 『自菴集』에는 그가 6세에 지었다는 「石榴」라는 시와 8세에 지었다는 「烏鵲橋」라는 시가 전한다.

2) 이동영, 「金自菴研究」, 『한국학논집』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강전섭, 「金球論」, 『古時調作家論』, 백산출판사, 1990.

3) 권두환, 「시조의 발생과 기원」, 『관악어문연구』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 이상원, 「초기 시조의 형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17, 민족문학사학회, 2000.

4) 김기탁, 「화전별곡의 이해」, 『영남어문학』10, 영남어문학회, 1983.

5) 최용수, 「自菴의 남해생활과 문학 -〈화전별곡〉의 성격 파악을 위해」, 『경남문화연구』18,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6.

6) 최재남, 「김구의 남해생활과 <화전별곡>」,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

의에서는 대체로 「화전별곡」의 문면에 드러나는 풍류나 흥취에 대해서는 공감할 하면서도, 김구의 유배기 다른 한시 작품에서 드러나는 외로움이나 그리움, 병적 고통 등에 주목하여 「화전별곡」에 드러나는 풍류나 흥취를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自慰'의 표방이거나 또는 醉樂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하여 부각하기 위한 역설적 행위로 규정하였다.

현재 김구의 문집인 『자암집』에는 모두 76수의 한시 작품이 전한다. 한시 작품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대로 외로움이나 그리움, 병적 고통 등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가 남긴 시문학 가운데는 이러한 정서와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작품들도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한시 작품도 있고, 시조도 있고, 아울러 경기체가인 「화전별곡」도 있다. 만약 선행 연구들의 주장대로 남해 유배기 김구의 삶이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심리가 드러나는 한시, 시조, 「화전별곡」 등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선행 연구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한시 작품들을 지나치게 확대·강조한 측면이 엿보인다. 또한 1~2년도 아닌 13년의 길고 긴 유배 생활을 줄곧 괴로움이나 외로움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김구의 학문적 성숙도나 인격적 수양의 정도로 비추어볼 때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해서는 후인의 김구에 대한 기억과 서술이 선행 연구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己卯年(1519). 이해 겨울에 土禍가 일어나 (선생이) 체포되어 義禁府에 갇혔다. 그리고 南海 絶島로 유배되어 화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시[詩]·술[酒]·음악[琴]·노래[歌]를 폐하지 않았으며 위태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그가 삶과 죽음, 궁함과 영달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여기지 않은 그 대체를 볼 수 있다.<sup>7)</sup>

료원, 1997.

7) 「自菴金先生墓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9~281면. “己卯. …中略… 是冬, 土獄起, 逮繫金吾, 被竄南海絶島, 禍將不測, 而不廢詩酒琴歌, 無危懼色, 其不以

위 기록은 김구의 외현손인 안응창(安應昌, 1603~1680)이 쓴 묘지명의 일부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다면, 김구는 유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매우 의연한 면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삶과 죽음, 궁핍과 영달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의 인격적 수양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그의 유배 생활이 괴로움이나 고통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록에도 보이는 바, 남해 유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김구가 향유하였다는 ‘시(詩)·술(酒)·음악[琴]·노래[歌]’는 바로 「화전별곡」에 드러난 모습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김구의 삶 가운데 문학 작품의 창작과 관련하여 관심 깊게 보아야 할 시기는 26세부터 32세에 이르는 관직 생활기와 33세부터 45세에 이르는 유배 생활기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직 생활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종실록』에 그의 언행이 많이 남아 있어서<sup>8)</sup> 온전한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은 문집 소재 시조 3수도 배경 기사가 부기되어 있어서 정확한 작품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유배 생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김구의 문집인 『자암집』은 그가 죽은 지 120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편집자 외현손 안응창의 기록을 참고하면,<sup>9)</sup> 본래 김구의 저술은 상당수가 있었는데 임·병 양란을 거치면서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산일되어 일부만 전해졌고, 이를 모아 편집·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문집 소재 작품들은 그의 저술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집소재 그의 한시 작품들은 대부분 유배 생활기에 창작된 것이라는

死生窮達爲欣戚，大可見矣。”

- 8) 『中宗實錄』을 살펴보면 김구와 관계된 기사가 대략 120여건에 이른다. 특히 그가 典經司經檢討官·試讀官·獻納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經筵 및 朝講·夕講 등 왕과 마주한 자리에서 士林의 일원으로서 성리학적 이상 정치에 입각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自菴金先生集序」,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82면. “先生之平生所著述，亦不保於前後兵燹，尤可惜也。我先人寔先生之外曾孫也，收拾如干詩文於散失之餘，寶藏巾衍，常欲刊行而未就。”

점이다. 결국 그의 유배 생활기 삶의 실상과 내면 의식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그가 지은 한시 작품들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시 작품에 드러나는 내면 의식과 교유관계, 여러 활동의 모습들이 곧 유배 기간 중 김구의 실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입론 지점은 매우 타당하였으며, 본고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시각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의 한시 작품들에 보이는 괴로움이나 고통 이외에 또 다른 인식과 생활의 면모들을 아울러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이 비록 양적으로는 소수일지라도, 현재 그의 창작 작품 가운데 일부만이 문집에 전하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작품들에서 엿보이는 여타 인식의 측면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그의 유배 생활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시각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구의 문집소재 한시 작품과 주변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가면서, 유배 생활기 김구가 지니고 있었던 인식의 측면과 생활상을 살피기로 한다. 특히 유배 생활 중에 그의 내면 인식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2. ‘憂中有樂’<sup>10)</sup>의 심리와 남해 생활

26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승차를 거듭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던 김구는 그의 나이 32세 되던 1519년 南袞·沈貞 등이 일으킨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하옥되고 추국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당당하게 현실과 맞섰다.<sup>11)</sup> 김구는 추국의 과정 중에도 자신의 행동에는 추호도

10) ‘憂中有樂’은 退溪 李滉이 스스로 찬한 墓碣銘에 나오는 표현이다. 퇴계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근심스러운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운 가운데에 근심이 있다.[憂中有樂 樂中有憂]’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김구의 남해 유배기의 삶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憂中有樂’이라 생각하기에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한다.

11)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6日(丙午). 金絳招曰: “臣年三十二. 性本庸愚, 只慕

잘못이 없으며, 자신이 뜻을 함께한 조광조·김정 등과의 어울림도 도를 기반으로 한 군자의 모임이었지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거나 國紀를 문란케 하는 소인배들의 모임이 아니었음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세는 각본대로 짜여 돌아가고 있었고, 김구를 비롯한 사림파들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김구는 옥중에서 上疏<sup>12)</sup>하여, 자신은 절대로 邪心이 없었음을 강변하는 한편 아울러 왕이 직접 몸소 자신을 국문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결국 開寧(현 경상도 김천)에 유배되었다.<sup>13)</sup> 게다가 12월에는 죄가 추가되어 결국 絕島인 南海로 다시 移配되었다. 그리고 길고 긴 13년간의 남해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 남해 생활 기간 중에 그가 남긴 한시들을 통해 그의 내면 의식과 유배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병리적 고통

유교적 이상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김구를 비롯한 기묘사림들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노선을 걸었던 만큼 그들의 몰락도 굴절이 심하고 비극적이었다. 김구의 경우 ‘絕島安置’의 중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유배 생활이 괴로웠을 것이다. 그의 한시 작품에는 이러한 심리가 곳곳에서 산견된다.

특히 유배 초기에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습한 바다 기후로 인한 풍토병과 당장 먹고 살아가야하는 끼니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은 섬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오는 심리적 중압감과 하루

古人師友之助，與同志之士交遊耳。進斥人物，非下類所爲。善者好之，不善者惡之，徒持公論，相與是非而已。朋比詭激，使國論顛倒，朝政日非事，非臣之情。”

12) 『獄中上疏』,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0면. “臣等俱以狂疏愚懇，遭遇聖朝，出入經幄，得近觀光，展竭愚衷，冒犯群猜，望欲吾君爲堯舜之君，豈爲身謀？天日照臨，無他邪心。但土類之禍一開，將不念後日邦家命脈耶？天門阻隔，無路達懷，悶默長辭，實所不忍。幸一許躬問，萬死無恨，言隘辭蹙，莫知所云。”

13) 『中宗實錄』卷37, 14年 11月 21日(辛亥). “…前略… 察其所爲，歸於亂政，事狀已著，終難可貸，固當按律治罪，以明示百官。第念前日侍從之臣，特從末減，光祖·淨·湜·絀等，遠方安置。自任·邊·世燾·薰等，外方付處，各以罪罪之。此豈予之得已歟？”

아침에 유배객의 신세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도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瘴海數行淚	바닷가 습한 기운에 눈물 흘리니
落花三月時	꽃 지는 삼월이라.
客中無所有	나그네 처지라 가진 바 없어
聊贈一篇詩	한 편 시를 준다네. <sup>14)</sup>

經歲嬰沈痼	한해가 다 가고 깊은 병에 걸려
閉門除瘴氛	문 닫아걸어 바닷가 습한 독기 막았네.
海覺鴉啼曙	바다에는 갈까마귀 우니 날 밝은 줄 알고
林知鶻鬪暈	숲에는 참새가 싸우니 해지는 줄 아네.
不眠歸夢絕	잠을 이루지 못해 돌아갈 꿈도 끊기고
禁酒旅愁紛	술을 금하니 나그네 시름만 분분하네.
何日離衾枕	언제나 이불 베개에서 나와
登高望北雲	높은 곳에 올라 북으로 가는 구름을 바라볼까. <sup>15)</sup>

첫 번째 시는 최생(崔生)과 이별하면서 준 작품이다. 최생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시를 적어 이별을 논한 것에서 그와 일정한 친연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의 첫 구절부터 자신의 남해 생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瘴'은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한 기운을 의미한다. 게다가 유배지 남해에는 바닷가의 짠 기운도 가득 하였을 것이다. 김구는 1488년(성종19) 서울 燕熹坊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남해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고통은 바로 상이한 기후 환경에서 오는 이러한 풍토병이었다. 다른 작품에서도 풍토병과 관련된 작품이 여럿 보이는 것으로 볼 때<sup>16)</sup>, 그

14) 「贈別崔生」,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15) 「病裏書懷 寄贈閱者叟」,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9면.

16) 「次韻送別徐允元再任遞歸」,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葉落蟬吟海嶠秋, 一壺扶病強登樓. 嫌却他鄉頻送客, 別時惹起故園愁.”; 「謫裏贈權正字」,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9면. “歲暮美人遠, 天涯無所親. 乾坤長夜月, 江海遠征人. 青鳥難通信, 黃茅不識春. 羈懷何處達, 留與瘴鄉隣.”

가 유배 기간 중에 풍토병으로 고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절은 비록 화창한 삼월의 봄날이지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힘없이 떨어져버린 꽃들뿐이었다. 따뜻한 봄에 오히려 땅에 떨어져버린 꽃은 바로 자신의 몰락한 처지에 닮아나다.

두 번째 시는 남해 생활을 한 해쯤 보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생각되는데, 이 작품은 아예 그의 병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문을 단아걸고 외부의 습하고 짙은 기운의 바람을 쐬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해가 뜨는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오직 어둡고 킁킁한 방안에서 홀로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게다가 병적 고통으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병약한 몸 상태인지라 술도 금하니 유배객의 처지에서 오는 그의 괴로움은 더욱 더 커져만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빨리 이러한 병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김구의 병적 고통은 그의 편지글에도 보인다. 그의 편지에는 병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야 했던 그의 처지와 속마음이 사실적인 필치로 잘 드러나고 있다.

絶島의 외로운 죄인의 처지로 친구의 편지를 받아보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나? 나는 요즘 병을 얻어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네. 너른 물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으니 그리운 마음 어찌하겠나? …(중략)… 나머지는 부디 몸조심 또 몸조심하기 바라네. 삼가 답장을 보내네. 자네가 보내준 아침 저녁 밀천거리 매우 고맙네. 자네가 아니면 어디에다 감히 구차하게 먹을거리를 구하겠나?<sup>17)</sup>

봄바람이 아직도 쌀쌀한데 자네는 요즘 어떠한가? 나는 海島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네. 전에 보내준 먹을거리는 내가 술에 취해 미처 잘

17) 『拜復安順之』,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2면. “絶嶼孤囚, 得奉故人音書, 慰豁如何勝言耶? 柔時抱病淹命耳. 盈盈隔水, 脉脉無言, 情思奈何? …(中略)… 餘冀珍重珍重. 謹拜復. 惠朝夕資, 感感. 非君安敢苟求口資? 仲春十六. 島客. 拜.”



받았다는 말을 못하였네. 또 지난번 편지에는 나의 군색함이 심하였지? 자네가 너그러이 살펴주게. 내 심정을 펼쳐 보인 것이니 또한 무방하리라 보네. 아마도 넉넉히 계속 보내줄 수 있겠지? 자네와 나 사이에 꺼리고 거절하는 이치가 없으니. 언제나 서로 만나서 마음속 깊은 회포를 한번 풀려나? 나머지 마음은 모두 말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네. 삼가 안부를 전하네.<sup>18)</sup>

위의 두 편지는 모두 김구의 오랜 친구인 안처순(安處順, 1493~1534)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를 주고받을 당시 안처순은 그의 부모를 위해 전라도 求禮縣監으로 나와 있었다. 남해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친구가 현감으로 있었던 것이다. 김구는 ‘島客’·‘海客’이라 자칭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편지에 적고 있다. ‘병을 얻어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그가 겪은 병적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던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특히 안처순이 보내준 ‘먹을거리[口資]’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편지의 ‘앞으로도 계속 넉넉히 보내달라’는 언급에서 이 문제가 김구에게 매우 절실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유배 초기에 김구를 괴롭혔던 병적 고통과 끼니에 대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유배 생활 자체에서 밀려오는 고달픔과 좁은 섬에 갇혀 지내는 답답함 등도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구는 젊은 나이로 중앙 관직에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하루아침에 남해로 유배되었기에 심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杯酒雲天暮  
浮生嶺海村  
今年寒食過  
花落雨紛紛

한잔 술에 날은 저물고  
뜬 구름 같이 영남 바닷가 촌구석에 살아가네.  
금년 寒食도 지나가고  
꽃도 지고 빗방울도 어지러이 날리네.<sup>19)</sup>

18) 「奉安順之書」,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2면. “東風猶峭, 氣味何如? 僕時淹命海島耳. 前示朝夕資, 沈酒不復. 前簡果窘甚, 惠照, 亦不妨一晉敍. 豈能裕繼? 君我無嫌拒之理. 何以相奉, 一暢沈抱? 餘懷都在不言中. 謹問. 元望. 海客. 頓.”

19) 「書旅窓」,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春風吹盡柳條楊  
聞道行聲喜欲狂  
恨我幽囚防出入  
江頭無計慰壺觴

봄마람이 버들가지 날리는데  
길에 행차하는 소리 들어 기뻐 미칠 듯하네.  
내 갇힌 죄수 몸으로 출입이 막힘을 슬퍼하여  
강머리에서 그저 술로 위안을 삼네.<sup>20)</sup>

김구는 유배 중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 하늘 아래 저 멀리 떠가는 뜬구름을 바라본다. 구름은 유유히 떠서 흘러가지만, 자신은 헛되이 한해 한해를 보내면서 그저 이 바닷가 촌구석에 처박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寒食’은 본래 晉文公의 충신이었던 介子推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종종에게 충성을 다 했던 그의 진의는 왜곡되어 解配될 기약도 없이 남해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복잡다단한 심리는 꽃잎이 힘없이 지고 빗방울도 어지럽게 날리는 意境으로 표상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 가운데 이렇듯 봄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여러 편이 있지만, 대체로 꽃이 피어나는 생동감이나 기쁨을 시화하기 보다는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는 또 다른 김구의 심리를 보여준다. 그것은 절도에 안치되어 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과 늘 홀로 지내야하는 고독감이다. 이 작품은 보수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이다. 보수주인은 유배지에서 유배인의 숙식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온다는 것은 일정한 먹을거리를 전해주거나 그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늘 홀로 지내야하는 처지에 사람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여타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행동에 제한이 따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이러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늘 술이었다.

이러한 심리는 비단 한시작품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시조에서도 읽어 낼 수 있다.

20) 「聞主人還 以詩迎之」,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여기를 더기 삼고 더기를 에삼고져  
 어기 더기를 멀게도 삼길시고  
 이몸이 蝴蝶이 되어 오명가명 헝고져.<sup>21)</sup>

위 작품은 절도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와 저기를 마음껏 넘나들고 싶으며 여기와 저기가 너무도 멀다는 그의 표현이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몸은 유배지 남해에 있지만 마음은 자신의 고향인 저 서울과 궁궐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蝴蝶'이 되어 여기와 저기를 자유자재로 다니고 싶다는 심리에서 그의 유배 처지에 기인한 부자유스러움과 절도에 갇혀 지내는 답답함을 읽어낼 수 있다.<sup>22)</sup>

## 2) 인간적 情懷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유배의 처지에서 오는 괴로움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개인적인 측면의 괴로움이다. 자신의 생존 문제를 염려하고 섬에 갇혀 지내는 외로운 심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유배는 또한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가족들의 안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가장 간절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심리는 자신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까지 확산된다. 이러한 심리가 종래 유배문학의 주요 모티프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報得平安字	편지로 평안하다는 소식을 얻었으니
餘懷憑兩君	나머지 감회는 두 사람에게 맡기세.
何處高山縣	高山縣이 어디인가
迢迢空白雲	아득히 흰 구름만 하늘에 있네. <sup>23)</sup>

21) 『短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4면.

22) 선행 연구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을 읽어내고 있다. 최용수, 앞의 논문 180~181면. ; 길진숙, 「16세기 초반 시가사의 흐름」, 『한국시가연구』10, 한국시가학회, 2003, 157면. 참조.

23) 『贈翔浩兄弟』,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怨別天涯海日昏  
暮雲秋樹對孤樽  
窮途心事應無限  
淚暗雙眸未敢言

하늘 끝에서 이별을 슬퍼하니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 구름 드리운 가을 숲에서 외로이 술을 대하네.  
막힌 길에 내 마음 응당 끝이 없고  
눈물이 두 눈에 어려 감히 말을 못하네.<sup>24)</sup>

첫 번째 시는 高山縣에 있는 상호 형제에게 보낸 시이다. 당시 김구의 부친인 김계문(金季文)이 고산현감으로 있었다. 가족들과 홀로 떨어져 남해에 지내면서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의 편지를 받고 가족들이 모두 무탈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매우 기쁘고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 가족 간의 정의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겠으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 평안하다는 소식에 만족하려는 면모가 보인다. 그러고는 이내 눈을 들어 부모와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애뜻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짧은 시구 가운데에서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무궁한 심리를 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두 번째 시는 서울도 돌아가는 종제와 이별하면서 쓴 시이다. 종제가 멀리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러 왔었고, 다시 이별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김구와 종제 모두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별을 슬퍼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어둑어둑해진 하늘과 저녁 구름 드리운 무거운 意境 설정이 김구의 내면 심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떠나가는 종제를 보면서 자신은 길이 막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처지를 자각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日暮雨聲不絕  
夜深人語無聞  
如何萬里孤客  
獨坐思親戀君

날도 저물고 빗소리도 끊이지 않고  
밤이 깊어 사람 기척조차 들리지 않는구나.  
내 어찌하다 만 리 밖의 외로운 나그네 되어  
홀로 앉아 부모 생각하고 입을름 그리워하는가.<sup>25)</sup>

24) 「送別從弟還京」,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25) 「萬懷」,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思鄉日日上高峯  
消息茫茫海嶽重  
餌盡孺人封藥裏  
錠來慈母寄衣縫  
窮途孤詠難憑興  
愁處深杯易見功  
自分生涯南地老  
一聲欣聽北來鴻

고향 생각에 날마다 고봉에 올라도  
소식은 아득하고 바다와 산만 겹쳤네.  
부인이 약 속에 싸준 음식 다 먹으니  
어머니가 옷에 보내준 돈이 왔네.  
길이 막혀 고독하게 읊조림이 흥부치기 어렵고  
시름 가득 한 곳 깊은 술잔만 공이 드러나기 쉽구나.  
내 생애 남쪽 땅에서 늙어감을 알건만  
북에서 온 기러기 소리 반갑게 들리네.<sup>26)</sup>

유배 중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특히 날씨가 갓겨나 자신이 아플 때 가족에 대한 생각은 더 배가 되었다. 첫 번째 시는 저물 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밤이 깊었지만 잠도 오지 않고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고독한 처지에 생각나는 것은 역시 가족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심사에 비추어 볼 때 1구의 빗소리는 그의 눈물어린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 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높은 봉우리에 올라 멀리멀리 보고자 해도 바다와 산에 가려 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집에 대한 소식도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에 집에서 부인이 아픈 자신을 위해 약을 보내면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몇 가지 음식을 보내왔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나자, 이번에는 모친이 아들을 위해 손수 옷을 지어 보내면서 그 속에 약간의 돈을 부쳐왔다. 멀리 떨어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김구에게 이러한 아내와 어머니의 행위는 고마움 이상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럴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을 것이고, 그것을 잊기 위해 김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술이었다. 유배 온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나고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은 이제 고향에서 날아온 기러기만 보아도 반가워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26) 「思鄉」,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60면.

한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부모의 죽음이었다. 그의 유배생활 7년째(1526년)에 부친상을 당한데 이어, 2년 뒤에 연이어 모친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유배객의 처지라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유학에서 부모의 상을 잘 치르는 것을 중시여기고, 게다가 김구는 이러한 유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과의 일원이었기에, 그가 부모의 상을 직접 치를 수 없는 데에서 온 죄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만큼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만큼 김구가 느낀 고통도 비례하였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문 내의 부음도 연이어졌다.

分明容響記來時	떠나올 때 분명한 모습과 음성이 기억나는데
聆訃茫然忽更疑	부음 듣고 망연자실 다시 의심이 드네.
門戶凋零餘幾在	문호가 조락하여 몇이나 남아있는가.
海天斜日獨霑衣	바다 너머 해지는데 홀로 옷깃 적시네. <sup>27)</sup>

위 시는 그의 백숙모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지은 시이다. 자신이 유배를 떠나올 때 보았던 백숙모의 정정한 모습이 떠오르건만, 이제 부음을 듣고 보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이은 가문내의 부음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실 아무것도 없었다. 2구에 드러나는 ‘茫然’의 심리가 바로 김구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자신은 유배 처지에 있고, 가문 내의 어른들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쇠락한 그의 가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지을 수밖에 없었다.

### 3) 남해 생활에 대한 적응과 交遊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김구의 남해 생활은 13년에 걸친 긴 생활이었다. 그렇지만 김구가 이렇듯 긴 세월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일관하지 않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혹 그랬다면 이미 자결을 하는 쪽을 선택

27) 「悼伯叔母」,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하였을 것 같다.<sup>28)</sup> 그렇다면 유배기간 중 삶의 면모들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문에는 남해 유배기 또 다른 생활상들이 확인된다.

김구는 수준 높은 도학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기에 유배생활이 지속되면서 차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냉철하게 자각하는 동시에 남해 생활에도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그의 시문에 드러난다.

物色知生意	물색이 生意를 아니
陽和布至仁	陽和가 至仁을 펼치네.
惟新開萬化	새로 萬化가 열리리니
餘澤及流人	餘澤이 나에게까지 미치리라. <sup>29)</sup>

蘆荻微茫水接天	갈대밭 너머 아득한 물이 하늘과 접하여
羈心秋興一樽前	나그네 마음 한 동이 술 앞에 가을 흥취가 일어나
네.	
餘年永荷乾坤惠	남은 해도 길이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받아
溟海涵生醉卽眠	바다 끝에서 생을 담아 취하면 곧 잠드네. <sup>30)</sup>

첫 번째 시에서는 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시의 계절적 배경은 화창한 봄이다. 이러한 봄의 기운으로 주변의 꽃과 나무는 물론 온갖 물색이 파릇함을 간직하면서 피어오른다. 그는 이렇듯 계절의 변화처럼 자신의 처지에도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窮卽通'의 이치를 통해 해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생각되는데, 오랜 유배 생활에서 오는 기대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28) 실제로 기묘사화로 그와 같이居昌에 유배되었던 김식(金湜, 1482~1520)은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결하였다.

29) 「題立春帖戶」,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30) 「亭上」,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서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작품들에서 그의 눈에 비친 봄의 형상은 ‘떨어지는 꽃’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주변 사물과 경치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 분명 심리상의 변화가 엿보인다. 그렇기에 그가 자신에게도 곧 여택 이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어조로 시를 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도 김구의 변화된 측면이 드러난다. 앞선 여러 작품에서 술은 유배의 괴로움을 달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秋興’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유배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그간 지니고 있었던 고통들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한 것이다. 정자에 올라 가올이라 유난히 파란 바다가 갈대숲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들을 대하여 술잔을 기울이는 김구의 모습에서 앞선 작품들과서와 같은 내면적 고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정 부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체념도 하고 인생에 대해 달관도 한 면모를 드러내 보이면서 오직 자연의 안온함을 얻어 편안히 생활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이러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김구의 심리는 분명 앞선 작품들에서 살았던 유배객으로서의 괴로움을 토로하던 작품들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다.

그는 이제 남해 지역의 주변 사람들과도 교류하면서 고독감을 떨쳐내고 있었다.

機幻張皇鼓吹宣	기환을 펼치며 북치고 피리 불면서
眞形假面眩人魂	진형과 가면이 사람과 귀신을 현혹시키네.
眞眞假假何須辨	진짜가 진짜인지 가짜가 가짜인지 무엇하러 구분하랴?
眞假從來只一根	참과 거짓이 본래 한 근원인 것을. <sup>31)</sup>

이 작품은 창작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을유년으로 1525년에

31) 「李密陽宅讌席觀優戲作 乙酉元日」,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해당한다. 그가 남해로 유배온 지 6년이 지난 시점이다. 또 이 시를 지은 날은 새해 첫날인 설날이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밀양(李密陽)'이라는 사람이 김구를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고, 잔치 와중에 광대의 재주를 보면서 쓴 시이다. 이밀양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남해 지역 인사로 생각된다. 김구는 유배객의 처지였지만 이 지역 인사의 집에 초청되기도 하고, 함께 잔치 석상에서 연회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대가 부리고 있는 재주는 시의 내용으로 보아 '變臉'이나 '탈춤' 등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은 「화전별곡」에 그려지는 분위기와 함께 남해의 문화적인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sup>32)</sup> 김구는 광대의 재주를 보면서 참과 거짓은 본래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태여 참과 거짓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오랜 유배생활로 인해 자신이 겪은 사회와 거짓된 현실에 대해 달관한 듯한 인식의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유배생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데, 대체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만을 하지 않고 남해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주변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교유의 폭을 넓혀갔다.

一壺清會近清流  
到手杯殘慎莫留  
恨子詩憑酒借力  
從前稊稗已先秋

한 병의 맑은 모임이 청류에 가까우니  
술잔이 손에 이르면 남기지 말게나.  
그대의 시가 술에 의지하여 힘을 빌어옴을 슬퍼하여  
중전의 제패가 이미 가을보다 앞섰군.<sup>33)</sup>

橋樹楓林過幾春  
斯文高會憶成均  
傍人莫教吹長笛  
一曲聞來種髮新

굴나무 단풍 숲에서 몇 번 봄을 보냈던가  
사문 고회에 성균관 문묘향사가 기억나네.  
주변 사람들 긴 피리 불게하지 마라  
한 곡조 듣고 나면 흰머리 돌아나네.<sup>34)</sup>

32) 최재남, 앞의 논문, 152면.

33) 「戲贈河清叟 名世淵」,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34) 「鄉校釋奠後飲 次姜綸韻 字理之」,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知己分携處	지기와 헤어지는 곳에서
滄波思不窮	창파에 생각은 끝이 없네.
天連山勢遠	하늘은 산세와 이어져 멀고
煙惹樹陰重	연기는 숲에서 일어나 음산하네.
萬事是非外	만사 시비 밖이요
百年詩酒中	평생 시와 술 속이라.
尋常君得此	평소 그대가 이것을 얻어
飄泊媿衰翁	떠도는 이 늙은이 부끄럽게 하였지. <sup>35)</sup>

위 작품들은 모두 김구가 남해에서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쓴 작품들이다. 첫 번째 시는 ‘하세연(河世涓)’, 두 번째 시는 ‘강륜(姜綸)’, 세 번째 시는 ‘박원(朴緩)’과 관계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화전별곡」 제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구는 「화전별곡」에서 이들 인물의 재주나 버릇 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남해 유배기간 중에 김구와 교류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모두 그의 남해 생활의 일부이다. 하세연과는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노닐고 있으며, 강륜과는 향교에서 釋奠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그의 교류관계에서 드러나는 술시·음악 등은 앞에서 언급한 김구의 외현손 안응창의 묘지명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세 번째 시는 1531년 5월 19이라고 날짜까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해는 유배 13년째 되던 해로 김구도 남해에서 臨陂縣(현 전라도 옥구)으로 量移되던 해였다. 이 시는 남해 교수로 왔다가 떠나는 박원을 전송하면서 쓴 시이다. 김구가 ‘만사는 옅고 그림의 밖이요, 내 평생은 시와 술이었다’라고 한 부분은 마치 자신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듯한 표현이다. 그런 그에게 찾아와 교류하였던 것이 바로 박원이었다. 「화전별곡」 2장에서 박원에 대해 ‘취하면 손을 짓는 버릇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

35) 「送別教授朴緩 辛卯五月十九日」,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9면.

로 그와 오랫동안 詩酒를 함께 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김구가 남해 생활 중에 교유한 지역 인물은 많다.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서태원(徐兌元)<sup>36</sup>, 이수재(李秀才)<sup>37</sup>, 홍언점(洪彦點)<sup>38</sup>, 민인로(閔仁老)<sup>39</sup>, 오수재(吳秀才)<sup>40</sup>, 오진사(吳進士)<sup>41</sup> 등의 인물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김구는 이들과 일상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시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김구의 교유한 인물 가운데는 남해 부근의 수령들도 있었다.

兩鄉風土自不同	두 고을의 풍토가 같지 않고
一身關國事難從	한 몸이 국사에 관계되어 따르기 어렵네.
天南塞北雲千里	남쪽 끝과 북쪽 요새는 천 리 거리니
尊酒何年更吐胸	어느 해에나 다시 술 차려놓고 흥음을 토하리오. <sup>42)</sup>

高樓冰雪壓朱炎	높은 누각 빙설이 여름 더위를 누르니
邂逅心親慶謙兼	다시 만나 친한 마음에 아울러 경사스런 잔치까지 벌이네.
百歲歡娛今日少	평생 기쁘고 즐거워함이 오늘 하루로는 부족하니
寧辭竟夕酒杯添	어찌 저녁 늦게까지 술잔 기울이는 것을 사양하랴. <sup>43)</sup>

첫 번째 시는 함경도 會寧으로 체임되어 미조항첨사 김위견(金渭堅)을 전송한 시이다. 두 번째 시는 곤양군수 김수겸(金守謙)과 술자리에서 지은 시이다. 첨사는 종3품 벼슬이고 군수는 종4품 벼슬에 해당한다. 김구의 유배 전 직임이었던 홍문관 부제학은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36) 「次徐兌元韻」,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 「送徐兌元還鄉」,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 「次韻送別徐兌元再任遞歸」,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 「代徐元之房直作 用前韻」,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37) 「和李秀才韻」,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38) 「送洪彦點 伯訥」,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39) 「送閔仁老赴試」,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9면.

40) 「送吳秀才應舉 二首」,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60면.

41) 「吳進士借燒酒 以詩答之」,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8면. ; 「吳進士病後來訪 戲贈」,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8면.

42) 「送別僉使金渭堅遞會寧」,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43) 「昆陽太守金守謙請書扇面醉中走筆 乙酉六月」,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높은 벼슬이었다. 따라서 유배객의 처지였지만, 부근 고을의 관리들은 김구와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러한 관계에 기인하여 김구는 유배 후 일정부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비호 아래 점차 남해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작품에 드러나는 분위기로 보아 여러 번에 걸쳐 매우 친밀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술과 시는 빠질 수 없었다.

이렇듯 유배가 오래 이어지면서, 김구는 점차 유배의 괴로움을 극복해 가고 남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인사들과도 교류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리들과도 교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배 초기의 괴로움과 고통들은 점차 희석되면서 다양한 교유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시·술·음악이었다.

#### 4) 산수 유람과 음악적 풍류

김구는 여러 방면으로 재주가 뛰어났지만 그 가운데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력 가운데 掌樂院 樂正 벼슬이 이러한 면모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한시 작품에서도 이러한 점을 짐작케 하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유배기에 지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手把漢中琴	손으로 한양에서 거문고 연주하여
驚動漢中人	한양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지
所以聲入妙	소리가 오묘하고
絃與手俱神	줄과 손놀림도 신기하였기 때문이었지.

絃與手俱妙	줄과 손이 모두 오묘하니
妙在一人心	오묘함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네.
心外更無物	마음 밖에는 다른 것 없으니

44) 김구의 한시 작품을 통해 당시 南海郡守였던 이환(李煥)과도 교류가 확인된다. 『送別太守李煥』,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7면. 참조.

嗟嗟古如今 아, 옛날이 지금과 같네.<sup>45)</sup>

위 시에서 김구는 자신의 과거 서울 생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김구가 한양에 있었을 때 거문고 연주로 매우 이름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대로라면 그의 솜씨는 단순한 취미나 교양의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거문고는 시조창영의 반주에 기본이 되는 악기이다. 이는 김구의 국문시가 창작과 가창의 모습<sup>46)</sup>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빼어난 거문고 연주 솜씨를 말하고 있다. 둘째 수에서는 음악의 수준 높은 경지는 단순히 손놀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달려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마음에 아무런 사심과 잡박한 심사가 없을 때라야만 비로소 신묘한 음악의 경지가 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문고를 연주하고 시를 쓰는 지금 그의 마음은 외물의 교란이나 가리움이 없는 無垢의 상태였던 것이다. 이 시를 통해 그가 길고 긴 유배 생활에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4구에서 '옛날이 지금과 같다'는 표현은 몸은 유배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서울에 있을 때와 같은 평상을 되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와 풍류를 즐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남해 주변의 승경을 찾아 유람을 즐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45) 「古意」,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5면.

46) 「短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4면. 中廟朝, 兪生坐直玉堂, 居常必正冠帶, 至夜亦不敢脫. 一日月夜, 明燭讀綱目, 忽有叩戶聲, 問而不答, 怪而視之, 乃上步出自宮, 立於廳上, 別監持酒饌以從. 先生急趨出伏庭下, 上命之上曰: “今夜月明如此, 聞讀書聲, 予故至於此, 何用君臣禮爲. 宜以朋友相待.” 遂與從容酬酢. 上曰: “誦聲清雅, 必善歌曲, 其爲予歌之.” 先生跪而對曰: “此日聖恩, 迴出今古, 不可以古之歌奏, 又不可爲今之曲. 臣願自製以奏.” 遂爲之歌曰: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운다 오늘이야 / 古往今來에 類 업은 今日이야 / 每日의 오늘 又듯면 모습 성이 가시리.” 上曰: “再斯可矣.” 又爲之歌曰: “올히 달은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에 / 거문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에 / 享福無疆 億萬歲를 누리쇼셔.” 上稱賞. 又教曰: “聞爾有老母, 賜以貂裘, 其歸遺之.”

言謹獨來非謹獨  
說養修處不養修  
頓無謹養吾何誌  
自在溪山自在遊

말로는 신독하러 왔다지만 신독하는 것이 아니며  
말로는 수양하는 곳이지 수양하지 못하네.  
삼가고 기쁨이 전혀 없으니 내 무엇을 적겠나?  
스스로 溪山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노니네.<sup>47)</sup>

위 시는 그의 절친한 친구 민회현(閔懷賢, 1472~1540)에게 보낸 것이다. 민회현은 正言 직책에 있다가, 기묘사화로 인해 직첩과 紅牌를 몰수당하고 파직되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20년 동안 한거하였다. 비록 김구처럼 유배의 처지는 아니었으나 벼슬에서 쫓겨나 낙향하여 사는 처지는 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작품은 이 둘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함께 보낸 시이다. 김구는 자신의 유배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慎獨·修養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서 계산에서 마음껏 노닐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強騎羸馬縱吟鞭  
積葉埋山響暗泉  
借問華房何處是  
蒼煙老樹夕陽邊

여윈 말을 눌러 타고 마음대로 읊조리며 말을 모니  
나뭇잎 가득한 깊은 산에 물소리 졸졸졸  
묻노니 華房이 어딘가?  
석양 주변으로 오랜 숲에서 푸른 연기 이네.

銷沈煙火有孤村  
猶喜溪聲傍耳喧  
鼎坐汀洲飢餒甚  
羨看湍激食沙痕

연기 자욱한 외로운 마을이 있지만  
시냇물 소리 귓가에 스침을 더 기뻐하네.  
물가에 모여 앉으니 배고픔이 심하여  
거센 물살이 모래를 먹는 것을 부럽게 쳐다보네.<sup>48)</sup>

이 작품은 김구가 華房寺에서 노닐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쓴 작품이다. 화방사는 원효(元曉)에 의해 창건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사찰이며, 현재에도 남해의 명승지로 꼽히는 곳이다. 김구는 유배 중이었지만 자유롭게 산수 유람을 하고 있다.<sup>49)</sup> 이 작품의 분위기에서는 유배객으로서의

47) 「寄贈閔正言懷賢」,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8면.

48) 「遊華房寺還歸道中作 二首」,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8면.

49) 앞에서 김구가 남해 주변의 수령들과 교류하였고,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유롭게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탐승을 다니는 여유로움이 드러나며, 그의 시선도 자유롭게 경물을 향해있다. 첫째 수에서는 말을 타고 시를 읊조리며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며 그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졸졸 졸 흐르는 기분 좋은 자연의 소리이다. 마치 신선놀음 하듯 여유로운 모습이다. 둘째 수에서는 시냇가에 앉아 노닐고 있다. 유람을 다니느라 피곤도 하고 배도 고풍 터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해줄 마을이 저 멀리 보이지만, 흐르는 시내에서 노닐며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고 있다. 그리고는 거센 물살이 모래를 헤집는 모습을 마치 밥을 먹는 것 같다는 재치 있는 표현으로 그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다.

이러한 산수 유람의 면모는 그의 시조에도 보인다.

山水 느린 골래 三色桃花 떠오거늘  
 내 성은 豪傑이라 옷 니븐 채 들옹이다  
 고즈란 건더 안고 므레 들어 속과라.<sup>50)</sup>

이 작품은 위에서 살펴본 산수 유람의 맥락에서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는 계곡에 떠나려 오는 桃花를 통해 봄 산의 풍광을 그리면서, 풍광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속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봄의 풍취를 흡수 받아들이는 행위까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감상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호방하게 아름다운 흥취에 빠져들어 산의 풍취와 계곡의 물, 그리고 도화를 껴안으며 물상과 적극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시안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김구의 모습에서 개인적인 유람과 풍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왕래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지을 시기에는 유배 초 '絶島安置'에 비해 감경된 유배형이 다시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고증하기는 어렵다.

50) 「短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4면.

51) 길진숙, 앞의 논문, 166면.

있다.

남해 유배가 여러 해 지속되면서, 김구는 지역 인사나 부근의 관리들과도 교유관계를 맺고 이로 인해 그의 유배생활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진 측면이 생긴 것 같다. 이로 인해 이제 남해 일대의 명승지를 찾아 유람도 다니고 스스로의 음악적 자질들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된 그의 시문에는 유배객으로서의 불우함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온전히 내면적 평온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 5) 탈속에 대한 지향과 仙的 풍류

주지하듯이 김구는 그의 정치 역정에서 사림파의 일원으로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남해 유배로 귀결되었다. 사림으로서의 정치적 패배이자, 개인으로서도 시련과 고난이었던 것이다. 앞서 그의 시에 드러난 개인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정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을 超逸 하려는 의식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榭下人休飲  
籠中鳥上天  
塵寔蟬蛻去  
迢遞五雲邊

나무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쉬고 마시듯  
새장 속의 새가 하늘로 오르듯  
세상의 굴레 훌훌 벗어 버리고  
저 멀리 오색구름 가로 가리라.<sup>52)</sup>

蓬島樓臺何處邊  
思君迢遞隔雲煙  
夢餘松月能相憶  
吟罷瓊琚許更傳  
遊覽有緣慙白髮  
行藏無計任蒼天  
何年蟬蛻鉛華術  
笙鶴飄然弱水千

봉래섬 누대는 어느 곳 끝에 있는지  
아득히 구름 저편 그대를 생각하네.  
꿈 속의 송월로 서로를 추억하며  
 읊기를 마치고 좋은 시구를 다시 전했다  
유람에도 인연이 있으니 백발이 부끄럽고  
나아가고 은거함은 계획할 수 없으니 하늘에 맡기네.  
어느 해에나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鉛華術로  
笙鶴처럼 천만리 弱水에 날아갈 수 있을까?<sup>53)</sup>

52) 「無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위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조는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이다. 굳이 장자(莊子)의 사유 체계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온갖 굴레와 속박의 연속인 것이다. 절도에서 유배객의 처지인 김구 자신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첫 번째 시에서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의지 등이 확인된다. 두 번째 시는 錦峯에 사는 '세홍(世弘)'이라는 이름의 道士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에서도 자신이 학처럼 신선들이 살고 있는 弱水로 날아가고픈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첫 번째 시의 2구는 벼슬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뜻을, 3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구속을 훌훌 벗어 버리고자 하는 뜻을, 마지막 4구에서는 결국 절대 자유의 경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시에서도 벼슬에 나아가고 은거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식의 발현인 것이다.

그러나 김구의 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히 현실을 초월하려는 심리의 일단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아울러 선계에서 노니는 듯한 풍류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僊僮蘿褐遠相過  
披却琴書惹紫霞  
看罷恍如驂白鶴  
飄然蜚到玉皇家

갈옷 입은 신선이 멀리 지나가고  
琴書を 펼쳐보니 자하가 일어나네.  
보기를 마치니 황홀하여 백학을 타고  
표연히 옥황의 집에 이른 듯.

悄悄幽居坐竹林  
開尊空翠引輕陰  
酌來當却流霞飲  
誰識塵間養道心

고요하게 幽居하며 죽림에 앉아  
술통 여니 하늘의 푸른빛이 가볍게 그늘지네.  
따라 마시니 流霞酒를 마시는 듯  
누가 진세에서 道心을 기르는 것을 알랴?

53) 「寄錦峯道士 時延方遊錦山」,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9면.

碧桃花發映篔簹林  
春去花殘見綠陰  
玄觀主人歸去早  
花開花落自春心

벽도화가 피어 대숲을 비추고  
봄이 가고 꽃이 지자 녹음이 보이는구나.  
玄都觀 주인이 일찍 떠나가니  
꽃 피고 지는 것이 春心이라네.

仙臺掩映碧桃林  
深洞口寒逗澗陰  
金竈石門多歲月  
還丹誰識葛洪心

선대가 碧桃林을 두르고 있어  
깊은 골 차가워 시냇가에서 머무르네.  
금조 석문에 세월이 많아  
還丹이 누가 葛洪의 마음임을 알까?<sup>54)</sup>

이 시는 앞서 말한 세홍과 교류하며 그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자암집』에는 세홍과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시가 모두 3편 6수가 전한다.<sup>55)</sup> 이 시에서는 김구가 남해에서 지내는 생활하는 모습을 신선 세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첫째 수는 琴書 펼쳐보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음악적 풍류의 모습을 드러낸다. 둘째 수는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을 신선이 유하주를 따라 마시는 것에 비하며 자신을 현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도심을 기르는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셋째 수는 꽃이 피고 지며 자신의 거처 주변의 대숲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봄의 정경을 이루는 모습을 드러낸다. 별천지의 풍경이다. 넷째 수는 아예 자신의 거처를 신선 세계로 묘사하며 자신도 葛洪(葛洪)처럼 還丹을 통해 신선이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남해에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주변의 풍광을 배경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인 것이다. 김구의 남해 생활이 아름다운 자연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시·술·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54) 「次錦峯延道士押 四首」,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56면.

55) 김구가 道士인 世弘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았고, 또 그의 시문에 仙의 표현이나 鍊丹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구에게 일정부분 道家의 취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향락적 흥취와 「화전별곡」 이해의 시각

앞에서 『자암집』 소재 한시 작품을 통해 김구의 남해 생활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내면 의식과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유배 초기의 괴로움과 고통이 해가 거듭될수록 약화되고, 내면의 외로움이 누그러들면서 점차 평상을 되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남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지역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차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과 시를 주고받고, 함께 모여 연회를 갖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산수 유람도 다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경기체가 작품인 「화전별곡」에 드러나는 김구의 심리와 행위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天地涯 地之頭 一點仙島  
 左望雲 右錦山 巴川高川  
 山川奇秀 鍾生豪俊 人物繁盛  
 偉 天南勝地 景 괴 엇더헝녕잇고  
 風流酒色 一時人傑 (再唱)  
 偉 날조차 멋분이신고

河別侍 芝芝帶 齒爵兼尊  
 朴教授 손저이 醉中썩룻  
 姜綸雜談 方勳鼾睡 鄭機飲食  
 偉 品官齊會 景 괴 엇더헝녕잇고  
 河世涓氏 발버훈風月 (再唱)  
 偉 唱和 景 괴 엇더헝녕잇고

徐玉非 高玉非 黑白頓殊  
 大銀德 小銀德 老少不同  
 姜今歌舞 錄今長鼓 버런學非 소졸玉只  
 偉 花林勝美 景 괴 엇더헝녕잇고

花田別號 名實相符 (再唱)  
偉 鐵石肝腸이라도 아니 굿기리 업더라

漢元今 以文歌 鄭韶草笛  
或打鉢 或扣盤 間擊盞臺  
搖頭輾身 備諸醉態  
偉 發興 景 괴 엇더헝녕잇고  
姜允元氏 스투렝딩 소리 (再唱)  
偉 듯괴야 줌드로리라

綠波酒 小麴酒 麥酒濁酒  
黃金鷄 白文魚 柚子盞  
貼匙臺예  
偉 ㄹ득브어 勸觴 景 괴 엇더헝녕잇고  
鄭希哲氏 過麥田大醉 (再唱)  
偉 어너제 슬플 저기 이실고

京洛繁華 |야 너는 불오나  
朱門酒肉 |야 너는 도흐나  
石田茅屋 時和歲豊  
鄉村會集|야 나는 도하호노라<sup>56)</sup>

주지하듯이 경기체가는 여말선초 사대부들의 집단적이고 향락적인 풍류의 현장을 반영하는 갈래였다. 「화전별곡」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지인 ‘花田’에서 지역 인사들과 모여 노니는 풍류를 나열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현장성이 강조되어 있다.

1장은 남해의 빼어난 경치를 말하고 있다. 주변의 산과 하천을 적시하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풍광을 ‘仙島’로 표현하고 있다. 또 그곳은 여러 인재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다. 「화전별곡」은 바로 자신을 포함한 이러한 인물들과의 집단성을 표방하고 있다.<sup>57)</sup> 2장은

56) 「短歌」,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273~274면.

57) 최재남은 경기체가 갈래의 성립조건으로서 ‘共樂’을 제기하였으며, 박노준도 경기체가 화자의 ‘집단’ 지향을 논한 바 있다. 최재남,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한국시

여러 지역 인사들과의 詩會 광경을 드러낸다. 앞서 살폈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하세연, 박원, 강륜 등은 모두 그와 교유하며 시를 주고받은 인물이다. 김구는 이들과의 꾸밈없는 모습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3장은 여러 기생들의 모습과 음악적 풍류의 현장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기생들의 주특기인 가무와 악기 연주에 맞춰 노니는 풍류의 현장이다. 4장은 주홍이 거나하게 올라 노래하고 피리불기도 하고 바리때와 소반을 두드리며 노니는 음주가무의 현장이다. 5장은 각종 술이 마련된 술자리의 풍경이다. 그러고는 이러한 즐거움이 가득하니 어느 날이 슬프겠냐고 말하고 있다. 6장은 서울의 변화함이나 높은 벼슬자리보다도 이곳 남해의 향촌 집회가 훨씬 좋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듯 「화전별곡」은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 인사들과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음악을 연주하고 기생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거나하게 노니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화전별곡」에서는 작자의 괴로움이나 고통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장에서 일부 그러한 심리가 드러나는 듯하지만,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 김구가 남해 주변을 유람하지 않았다면, 결코 남해의 지리적 특성이나 승경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를 시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의 산수 유람이 남해를 ‘花田’이자 ‘仙島’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유 관계가 바로 이러한 집단적 풍류의 현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또 그의 특기인 시와 음악이 여기에 곁들여지면서 「화전별곡」에 드러나는 풍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상 「화전별곡」의 분위기와 드러난 모습들은, ‘(선생은) 시·술·음악·노래를 폐하지 않았으며 위태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외현손 안응창의 기록이나, 김구의 문집 소재 한시 작품에서 드러나는 남해 생활의 여러 면모와도 일치하는 지점들이 확인된다. 아울러 「화전별곡」은 김구의 남해 유배 후반기 작품으로 추정이 가능하리라 본다.<sup>58)</sup>

가연구」2, 한국시가학회, 1997.; 박노준, 「경기체가와 시적 화자의 ‘집단’ 지향」, 한국시가학회 제47차 정례학술발표회 자료집, 2008년 3월 21일.

#### 4. 결론

본고는 자암 김구의 남해 유배기 내면의식과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문집 소재 한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구의 한시 작품 가운데 대다수가 남해 유배기에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에 드러나는 면모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병리적 고통, 인간적 情懷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해 생활에 대한 적응과 交遊, 산수 유람과 음악적 풍류, 탈속에 대한 지향과 仙的 풍류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측면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충분히 논의·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다른 세 가지 측면들도 비중을 두어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3년간의 긴 유배 기간 동안 여러 심리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배가 지속되고 차츰 남해 생활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일상을 회복한 측면이 엿보이고, 무엇보다도 주변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지방 인사들도 있었고 인근 지역 수령들도 있었다. 따라서 김구는 이들과 어울리면서 유배 기간에도 여러 모임을 함께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와 술과 음악이 늘 빠지지 않았다. 한편 김구는 이들의 도움과 비호로 남해 일대의 승경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측면들이 유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방한 풍류의 모습이 가득한 「화전별곡」이라는 작품의 창작을 가능케 한 기반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김구의 남해 유배기 한시 작품을 탐색하는데 무게중심이 있어, 「화전별곡」에 대한 논의는 단초만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화전별곡」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후고로 미룬다.

58) 최용수는 「화전별곡」의 창작시기에 대해 유배 직후인 1519년부터 1526년 사이로 보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中宗實錄』

金絳, 『自菴集』, 한국문집총간 24. 민족문화추진회.

강전섭, 「金絳論」, 『古時調作家論』, 백산출판사, 1990, 22~39면.

권두환, 「시조의 발생과 기원」, 『관악어문연구』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21~45면.

길진숙, 「16세기 초반 시가사의 흐름」, 『한국시가연구』10, 한국시가학회, 2003, 149~173면.

김기탁, 「화전별곡의 이해」, 『영남어문학』10, 영남어문학회, 1983, 25~45면.

박노준, 「경기체가와 시적 화자의 '집단' 지향」, 한국시가학회 제47차 정례학술발표회 자료집, 2008.

이동영, 「金自菴研究」, 『한국학논집』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43~57면.

이상원, 「초기 시조의 형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17, 민족문학사학회, 2000, 122~145면.

최용수, 「自庵의 남해생활과 문학-〈화전별곡〉의 성격 파악을 위해」, 『경남문화연구』18,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6, 161~190면.

최재남,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한국시가연구』2, 한국시가학회, 1997, 5~28면.

최재남, 「김구의 남해생활과 〈화전별곡〉」,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135~169면.

투고일 : 2010년 6월 10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 The banished life of Ja-am Kim Gu & Aspect of "Joy within the Sadness"

Cho, Ji-hyo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nner side of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life during Kim Gu's banishment to the Nam-hae(南海) through Chinese poem works written during from 1488 to 1534 by Ja-am(自菴) Kim Gu(金絀), who was active during the early 16th century.

The Kim Gu's theme tendency of Chinese poem works can be mainly organized into five types of ①agony and allergic pain of banished life, ② humane mind and longing for family, ③application and interaction upon live in the Nam-hae, ④landscape sightseeing and musical appreciation, and of ⑤aim to escape the world as well as truthful appreciation.

As Kim Gu's banished life continued on for 13 years, he began to gradually adapt to the life in the Nam-hae while showing the aspects of mentally restoring the daily life and actively interacting with people near. Accordingly, Kim Gu spent his period of banished life participating in various meetings along with these people and such courses of meetings were always accompanied by the poem, alcohol, and music. On the other hand, Kim Gu, under protection and help of these people, was able to travel to places around southern sea with beautiful scenery.

As a result, such aspects are assessed being the base allowing Kim Gu to write 「Hwajeonbyulgok(花田別曲)」 full of magnanimous appreciation for the arts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written during his period of banishment.

**Key words** : Ja-am(自菴), Kim Gu(金絀), Literature during banishment, Kyunggichega(景幾體歌), Hwajeonbyulgok(花田別曲), Joy within the Sadness(憂中有樂), Kimyosahwa(己卯土禍)